

# BEAT 무술인과 지도자 양성의 요람

## (사)국제격투기연맹 은광연수원 개원식



(사)국제격투기연맹은 10월17일 오후3시 은광연수원 개원식을 가졌다.

(사)국제격투기연맹(총재 조동엽)은 10월17일 오후3시 은광연수원 개원식을 가졌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337번지 위치한 은광연수원 개원식에는 조동엽 총재를 비롯한 수석고문 조준(벨트), 유병우(전 권투선수), 정종근 포천시의회부의장, 김중천 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천희 은광연수원장은 "연수원 개원에 도움을 준 이강규 명예회장과 포천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격투기연맹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엽 총재는 "21세기 스포츠 컨텐트인 격투기가 미국과 일본만

의 점유율인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한국도종브랜드인 BEAT대회를 출범시키고 제1회 대회를 지난 3월 88체육관에서 개최했다"며 "오늘 은광연수원 개원을 계기로 한국에서 만든 BEAT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종근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글로벌 시대에 스포츠인 격투기는 선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며 "16만 시민과 더불어 개원을 축하하며 한국고유의 격투기 브랜드인 BEAT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한편, BEAT란 차, 두드러진다는 뜻으로서 기존의 격투기보다 더한 파워와 테크닉 등을 통해 관객에게 보다 즐겁고 흥미로운 경기를 보여주고 K-1과 UFC와의 경쟁을 통해 한국에서 만든 세계적인 격투기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해 (사)국제 격투기 연맹이 명명한 대회명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생활체육 골프대회 종합우승 차지

## 남자 1위 이진섭, 여자 1위 이재숙 선수



제7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골프대회에서 포천시 2부 우승을 차지했다.

제7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골프대회에서 포천시가 2부 우승을 차지했다. 포천시는 2팀 8명이 참가해 이번대회에 참가해 남자부에서 이진섭 선수가 1위(70타), 김화영 선수가 2위(70타)를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이재숙 선수가 1위(73타), 구순자 선수가 2위(74타)를 차지해 우승(439타)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1200만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실천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질적 향상 및 동

호인들에게 대한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동두천 다이내스티 CC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시군대학 단체전으로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했으며 점수는 1팀 상위 3명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한 포천시 선수는 ▶신재영 ▶이진섭 ▶김화영 ▶유인복 ▶이정숙 ▶구순자 ▶김병숙 ▶이재숙 등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목회 단상



김형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 곁에 있어야 할 사람!

우리는 지금의 탑 스타의 자살을 보면서 큰 충격과 한편 자괴감(自愧感)을 갖게 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많은 선남(善男)들의 선망이 되고 사랑을 받던 스타가 비운(悲運)의 운명을 선택한 것에 대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가진 물질이나 명성 인기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 그녀에게 진정한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착각이 결국은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했는지 모른다.

이제는 인기도 쇠락하고 주위는 자기의 이 공허함을 메워 줄 곁에 사람이 없다는 불안이 결국은 우울증(憂鬱症)으로 자신을 옥죄고 여기를 탈출하지 못한 그는 이런 곳으로의 해방은 저편의 세상이라는 생각에 두 자녀를 남긴 채 떠나고 말았다.

우리는 누군가 의기소침(意氣銷沈)해질 때 의기를 주는 말 한마디는 생명을 살리고 주기의 기회가 되게도 한다.

인도의 네루 수상을 '곁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힌두교의 고전(古典) '우파니샤드' 즉 '곁에 않는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는 힌두교도로서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했다. 그는 가난한 동족의 곁에 앉아 희망을 주었고 동서양진영(東西兩陣營)의 곁에 앉아 평화를 모색했다.

세상에는 멀리 앉아 남의 흉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많다. 곁에 앉아 이해하려는 심정으로 남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들어 주는 사람은 적다. 그러한 자세에 너무 익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

우리는 이번 충격적인 사회현상을 보면서 진정한 옆에 앉겨 위로자가 되고 소망의 대화가 진지하게 해보자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로 오신 예수께서는 살리는 자리 희망의 대화 용기의 말씀으로 격려 하였고 옆에 계셨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곁에 앉았다. 창녀와 병자들의 곁에 앉았다. 심지어 십자가의 운명(殞命)하는 순간까지 사형수(死刑囚)의 곁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성서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신다. 마태복음 28장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 곁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문의) 031-532-2489

#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임원 격려금 전달

##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한국어 강의 현장 방문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임원들은 10월16일 12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방문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결혼이주인 여성들을 격려했다.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회장 김예자) 임원들은 10월16일 12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소장 신상목)를 방문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결혼이주인 여성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예자 회장 일행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 1950년대 결혼해서 미국생활을 시작할 당시 어려움을 기억하게 된다"며 "한국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가 6세가 되기 전에 양 부모가 쓰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녀 교육을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자녀를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려면 반드시 어머니의 언어를 6세 이전에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자 회장은 금일봉을 전달하면서 한국문화와 여러분 모국의 문화를 모두 익히게 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교육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상목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소장은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총회가 산청호수 한화콘도에서 개최되고 있어 포천을 방문한 이회 회장 일행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노인 자살

유명 연예인들의 죽음으로 사회가 한바탕 들쭉거렸습니다. 또한 모방 자살이 이어져 자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분명, 자살은 일부 젊은 층에만,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에게도 '자살'이 집되기 싫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이 가릴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 질병과 경제적 문제, 외로움 때문에 극단의 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노인의 자살자살률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0~64세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자살률)는 1995년 17.4명에서 2005년 48.0명으로, 65세~69세 노인은 19.2명에서 62.6명으로 70~74세 노인도 24.8명에서 74.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늘어나는 추세로

75~79세 노인은 27.5명에서 89명으로, 80~85세 노인은 30.2명에서 127.1명으로 각각 3.2배, 4.2배 증가했습니다. 70~74세 노인을 남녀로 구분하면 2005년 10만명 당 자살 수에서 여자는 41.4명에서 그친 반면 남자는 125.4명이나 됐습니다.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급격히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사회적 관심 약화가 노인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사회적체가 자살증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절구에 귀 기울이는 주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은 자살에 앞서 자신의 행동을 미리 암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은 뚜렷한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인일수록 자살을 유발하는 우울증, 무기력증, 과대망상 등 정신적 질병들을 나이 탓으로 쉽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극

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은 확률이 높다고도 합니다.

흔히 자살을 앞두고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말수와 표현력 감소, 알코올 의존, 신경질적 증상, 자기비판 등의 행동인데 이 시기에 가족 및 이웃들의 정성어린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사회는 분명 심히 병든 사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생명의 고귀함과 존중에 대한 인식 교육,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과 자살을 고려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종교생활, 취미생활, 운동 등을 적극 권장해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병들어 않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재숙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회장

# 포천축협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축산물 브랜드 입니다.

조합장 인사말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축협은 1964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우리의 식량기반인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축협은 WTO, FTA 등 세계적인 수입자유화 추세속에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우리 먹거리를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땅의 축산업을 지키는 굳건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축협은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행복하고 풍성한 식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축협 조합장 양기원

- 첫째** 포천축협이 정성을 들이고 정부가 인정한 HACCP의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 깨끗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입니다.
- 둘째** 포천의 양육가가 직접 생산하고 포천축협이 정성들여 가공한 순수 포천산 돼지고기입니다.
- 셋째** 가족 계열화 사업을 통하여 엄선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 넷째** 지역의 특성을 적극 활용한 저지 포천축협의 축산물은 육질이 좋으며, 맛 좋고 뭉에도 좋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 다섯째** 돼지의 사육과 가공, 유통 등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여 '농장에서 소비자까지'의 투명한 유통과정을 책임집니다.

**포천축협 축산물 유통사업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254-5 TEL : (031)533-6901~3 FAX : (031)533-6904

| 미트빌 판매점      |              |
|--------------|--------------|
| 포천축협판매장      | 031-536-1571 |
| 포천농협하나로마트    | 031-534-1906 |
| 가산농협 내촌지점    | 031-531-9746 |
| 일동농협 본점      | 031-533-0870 |
| 일동농협 이동지점    | 031-532-4411 |
| 영중농협하나로마트    | 031-532-6612 |
| 영북농협하나로마트    | 031-534-0831 |
| 관인농협하나로마트    | 031-532-0537 |
| 양주축협판매장(본점)  | 031-566-4501 |
| 동두천농협하나로마트   | 031-861-3304 |
| 가평축협판매장      | 031-582-4111 |
| 남양주축협판매장(본점) | 031-566-4501 |
| 남양주축협판매장(마석) | 031-594-2883 |

www.pochunlc.kr